

NCCK기후정의 아카데미

기후위기 시대, 교회는 어디에 설 것인가?
지역과 함께 만드는 기후정의 실천

2026년 NCCK 기후정의 아카데미 발제

NCCK '기후정의 10년 행동'과 교회의 실천

정원진 목사

NCCK 기후정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후정의 10년 행동’은?

2025년 6월 18일~24일

WCC는 2025년 6월 18일~24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기후정의행동
에큐메니칼 10년(2025-2034):
대전환을 향하여 생태적 회심으로
함께 나아갑시다”를 공식 출범

2025년 11월 24일

NCCK는 2025년 11월 24일에
열린 제74회 총회에서
‘기후정의 10년 행동’ 동행 선언문 채택

왜 이번 10년인가?

**“기후위기는 단지 환경적 비상사태가 아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위기이다.”**

교회로서 우리는

(1)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추출적 자본주의, 식민주의,
소비주의 체제에 공모했던
죄를 회개하고,

(2) 탐욕과 지배의
구조에 저항하며,

(3)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소명을
회복한다.

‘10년 행동’의 의미

'10년 행동'은 단순한 캠페인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다. 전 세계교회가 함께하는 영적 순례이자 예언자적 운동으로 기후의 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한다.

영적 여정:

생태 파괴에 가담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회개하며, 창조세계 돌봄에 뿌리내린 제자도로 갱신한다.

예언자적 증언: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구조적 변화를 옹호한다.

실천적 행동:

교회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적응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지원한다.

살아있는 증언:

지속가능성의 안식처, 회복력의 중심지, 희망의 목소리가 된다.

주요 다짐

이 예언자적 초대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다음의 행동을 다짐한다.

희망 안에서
함께 걸겠습니다.

교회의 증언을
쇄신하겠습니다.

생명의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변화를
옹호하겠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생명을 주는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취약한 자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회개하고
변화하겠습니다.

10년 후 2034년의 비전

(1) 교회가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다: 신학과 예배, 투자, 탄소중립 등에서

(2) 혁신적인 정책들이 실현되다: 화석연료비확산조약 체결, 생태학살법 제정, 생태적 배상 실현

(3) 공동체들은 회복력이 있고, 역량이 강화되다: 취약 공동체와 취약 계층에서

**(4) 추출적 자본주의를 넘어 생명의 경제에 관한 새 담론이 회자된다:
지구=공공재, 성장의 한계=축복**

NCCK ‘기후정의 10년 행동’의 목표

- (1) ‘2050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따라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이룬다.
- (2) 기후정의와 생명의 경제 실현을 위한 호소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3) 생태적 기독교 영성과 신학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 (4) 기후위기 약자를 보호하는 ‘생명의 그물망’을 넓게 펼치고, 자연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생태적 선교 모델을 만든다.
- (5) 화석 자본주의에 맞선 대안적 생태 문명의 모델을 모색하고 구현한다.

NCCK ‘기후정의 10년 행동’의 토대

(1) ‘기후정의 10년 행동’의
시기별,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3) 다양한 워킹그룹의
생성과 활동을 지원한다.

(2) 실천을 담당할
중심 플랫폼을 마련한다.

(4) 필요한 조직과 예산
마련에 힘을 모은다.

과제 1 : 중심 플랫폼 마련

(1) NCCK 위원회 간의 협력

(2) NCCK 회원 교단 및 기관과 연대 및 협력 : 각 교단 기후정의 실무 부서 및 기구, YMCA, YWCA, CBS 등

(3) 에큐메니칼권 기후정의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 기환연, 녹색교회 네트워크, 기기비, 살림 등

(4) 복음주의 교단과의 연대와 협력 : 성서한국, 기윤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등

과제 2 : 연도별 로드맵 설정

(1) 교육 : 목회자→(신학생)→평신도 지도자→평신도 일반

(2) (지역에 뿌리내린) 녹색교회 확산

(3) 햇빛발전소 확산

(4) 탄소중립교회 세우기

(5) 에너지 자립마을 세우기

과제 3 : 정부 및 지자체 정책

(1) 밀어 주기 :

자산지소,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참여형 햇빛두레 사업,
그린리모델링, 탈플라스틱,
탄소포인트제 등등

(2) 바로 잡기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초고압 송전소로 건설,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대체불가
대한민국-기술 패권(제국)주의 등등

과제 4 : 철저한 협력과 세계적 연대

(1) 타종교 및 시민사회 기후정의 단체

(2) WCC 추진 과제 : 화석연료 비확산조약, 기후배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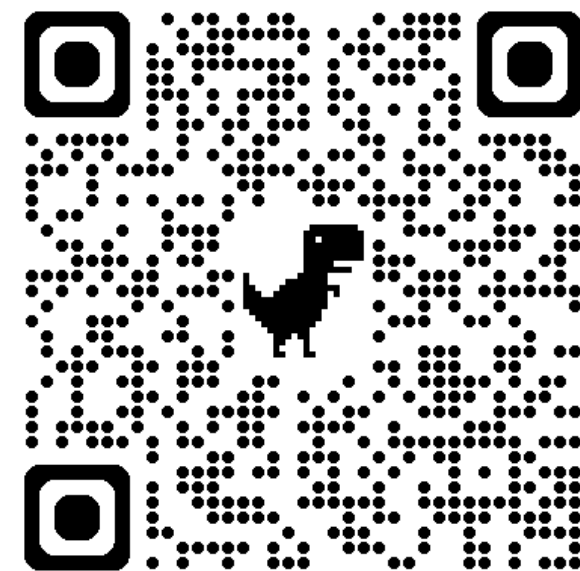
당면한 일 1 : 2026년 창조절 성수

기 간 : 9월 1일~10월 4일

주 제 : 생명의 물

안내서 내려받기 : <https://bit.ly/2026창조절안내서>

※ 포스터 가져옴



당면한 일 2 : 2026년 기후정의행진 참여

일시 :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3:00

장소 : 서울시청 및 송례문

주제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연합예배는 오후 2시 덕수궁 인근에서 진행예정

※ 포스터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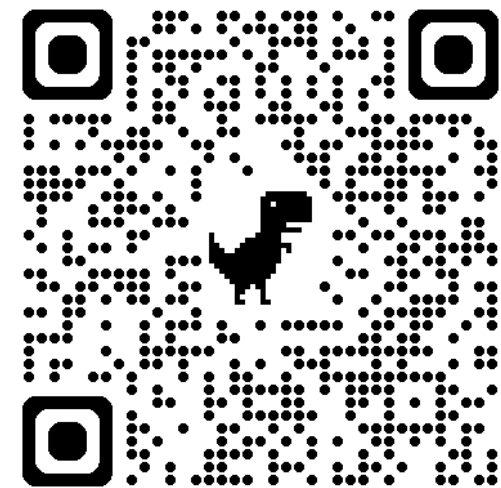
당면한 일 3 : 교단별 화석연료 비확산조약 참여 확산

NCCK는 제74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명정의 실현을 위해 ‘화석연료 비확산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 FFNPT)’ 참여를 결의.

화석연료 비확산조약은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의 신규 개발과 확장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단계적 감축을 이루기 위한 국제적 시민사회 운동임.

교단, 노회, 교회와 개인이 참여 가능 :

<https://www.fossilfueltreaty.org/#endorse>



**대전환을 향하여
생태적 회심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10년 행동'은 전 세계교회가 함께하는
영적 순례이자 예언자적 운동으로
기후의 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